

‘홍박사 챌린지’ 조훈, 알고보니 엄마도 유튜버

개그맨 조훈 모 박금희씨, 4월 유튜브 채널 개설
일상 콘텐츠 주로 게재... ‘조훈엄마’의 모습 공개
“훈이는 ‘윙클’ 아냐... 혼자서 잘 될 수 없어” 조언

“그쪽도 홍박사님을 아세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 같은 인트로로 시작하는 ‘맘’이 화제가 되고 있다.
‘49금을 넘나드는 화려한 춤답으로 전국 여인들을 울리고 웃기는 꽃중년 조주봉’이라는 콘셉트로, SBS 공개 개그맨 출신 조훈이 내놓은 ‘홍박사님을 아세요’ 노래의 일부본이다.
경쾌하고 중독성 있는 리듬감과 손쉬운 가사·안무 등이 특징으로, 다수의 영상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를 따라 하는 ‘홍박사 챌린지’가 회자되고 있다.
“그냥 조현영 ‘다나카’ ‘엄지렐라’ 등 여러 크리에이터가 참여한 챌린지 조회수는 수백만회를 웃돌고 있다. 조훈이 자신의 부캐(부캐릭터) 조주봉으로 모든 챌린지 영상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도 또 다른 특징이다.
이처럼 최근 온라인상에서 크리에이터로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조훈. 알고보니 그의 어머니도 지난 4월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
16일 유튜브에 따르면 ‘훈이엄마(구독자 1600여명)’ 채널은 지난 14일 ‘홍박사 열풍

의 숨은 주역 1등 개그맨 조훈엄마를 만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채널은 조훈의 어머니 박금희씨가 운영 중인 곳으로, 가정의 소소한 일상을 콘텐츠로 담아내고 있다. 조훈과 그의 가족 등이 출연하는 영상이 주를 이룬다.
인터뷰 형식으로 촬영된 당시 영상은 박씨가 의상과 영양제, 간식 등을 챙기며 아들 조훈의 출근 준비를 돕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아울러 “조심하고, 바쁠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인사성 바르게 하라” “많이 더워서 지치겠다”는 정감 있는 인사말로 배웅하는 모습도 담겼다.
박씨는 조훈이 개그맨을 처음 꿈꾼 시기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거의 7살 정도라고 보면 된다. 성장 과정에, 청소년 때도 제가 계속 반대했다”며 “그런데도 제대하고 나올 때까지도 뜻을 굽히지 않아서 ‘아들이 원하는 게 그거구나’ 생각하고 많이 응원하고 지원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홍박사 챌린지’가 국내외에서 대박이 났다는 이어진 물음에는 “말씀 중에 죄송하다. 훈이 ‘윙클(윙클클)’ 아냐. 개그는 절



대 혼자서는 잘 될 수 없다”며 “이번 홍박사 챌린지도 과나. 윙클이, 진세, 재율이 현석이까지 동료들이 함께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절대 윙클 아냐”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윙클이란 말은 안 했다’는 반응을 내놓자 말문이 막힌 듯한 표정을 짓는 박씨. 이는 단호한 어조로 거듭 ‘윙클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장면부터 익살스러운 연출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박씨는 조훈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 “저는 항상 처음부터 말한다. 조심 잃지 말고 겸손하고”라며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코디네이터분들한테 잘하고 늘 감사하고. 그리고 훈이를 사랑해 주시는 전 세계 수많은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런 거면 된다”고 전했다.
앞서 박씨는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콘텐츠 소개, 개인기 등을 담은 메타코미디 크리에이터 부분 지원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메타코미디는 조훈이 속한 국내 코미디 레이블이다.
한편 조훈과 동료 개그맨 이선민이 함께 운영 중인 ‘The면상’ 채널에 지난달 5일 올라온 ‘홍박사님을 아세요’ 공식 뮤직비디오는 이날 낮 기준 28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태연, 8개 지역 12회 공연

한류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솔로 가수 태연이 3개월간 펼친 아시아 투어에 마무리했다.
2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태연은 지난 19~20일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아시아 투어 피날레 ‘태연 콘서트 - 디오드 오브 러브 인 싱가포르’를 펼쳤다.
이번 싱가포르 공연은 태연이 현지에서 약 3년5개월 만에 선보인 콘서트다. 당초 예정된 1회 공연이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돼 공연을 하루 더 추가했다. 2회차 공연 역시 단숨에 매진됐다.
태연은 ‘아이(I)’, ‘사계(Four Seasons)’, ‘불티(Spark)’ 등 히트곡 퍼레이드는 물론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사한 ‘워크엔드(Weekend)’, ‘노 러브 어게인’ 등 풍성한 세트리스트를 선사했다. 양일간 총 1만8000명이 운집했다.
태연은 “오랜만에 콘서트를 하는 저에게도 의미가 큰 공연이었다.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 알게 해주었다. (팬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고, 만족시켜 드리고 싶은 분들”이라고 감격했다.
“어떤 단어나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사랑하고 고맙다. 투어가 끝나면 다들 시원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시원하다. 또 다음이 있기 때문에 섭섭하지 않다”고 덧붙혔다.

“꿈을 꿨나봐 눈을 뜨니까 거짓말처럼”...가수 아이유, ‘마시멜로우’ 탈 쓴 이유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갤러리아 포레 더 서울라이티움.
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이지은)의 데뷔 15주년을 기념한 미디어아트 전시 ‘순간.(Moment.)’을 둘러보던 관람객들은 마시멜로

우 인형을 유심히 지켜봤다.
특히 유애나(아이유 팬덤)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자신들과 함께 전시를 둘러보는 마시멜로우 탈 속 인물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했기 때문이다.

데뷔 15주년 기념 미디어아트 전시 ‘순간.(Moment.)’ 성료

“꿈을 꿨나봐 눈을 뜨니까 거짓말처럼 다 사라져 널 만날 거야”(아이유 ‘마시멜로우’ 중)라는 노래말처럼 마시멜로우 인형이 전시에서 사라질까 유애나가 그의 주변으로 하나둘씩 물려들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아이유가 사전 스포일러 없이 비밀리에 전시장을 잠깐 방문한 것이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는 마시멜로우 탈을 쓰고 직접 전시를 체험했다. 관람 중 아이유임을 알아챈 팬들이 다가왔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아이유는 ‘팬사랑의 아이콘’답게 팬들을 살뜰히 챙기는가 하면,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했다”고 확인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전날까지 열린 이번 전시는 콘텐츠와 기술의 만남으로 호평을 들었다. 미디어 파사드, 라일락 향기와 홀로그램, 웨더 갤러리, 아이유·유애나의 방 재현, 디지털 테크가 접목된 체험형 전시 공간 등이다.
특히 ‘시간의 바깥’, ‘에잇’, ‘레옹’, ‘반쯤지’ 등

진숙한 히트곡의 초기 버전을 엿본 목소리의 허밍, 영어 가이드 등 다양한 버전으로 들을 수 있어 신선함을 더했다. 그간 공개되지 않은 독점 영상도 선보였다.
아울러 전시 기간 예측불가능한 여름 날씨가 이어졌는데, 현장 관람이 끊이지 않았다. 관람객들은 저마다 글로벌 소셜 미디어에 관람 후기를 남겼다.
이담은 “관객들이 와서 보고 가는 단편적 관람이 아닌, 입장부터 출구까지 아티스트와 같이 소통하고 오감을 나눈 단위로 교감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하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아이유와 이담은 내달 공연 실황 영화 ‘아이유 콘서트: 더 골든 아워’를 극장에 건다. 지난해 국내 여가수 최초 올림픽주경기장에 입성해 한국 음악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쓴 ‘아이유 콘서트: 더 골든 아워’를 스크린으로 옮긴 것이다. 해당 공연은 이를 간 9만명이 운집했다. 이 공연 실황 영화 역시 아이유의 데뷔 15주년을 기념한다.



‘임창정 걸그룹’ 미미로즈 다음달 14일 컴백 확정

가수 겸 배우 임창정이 제작한 걸그룹 ‘미미로즈(mimirose)’가 약 1년 만에 컴백한다.
21일 소속사 에스아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미미로즈(최연재·인효리·한예원·윤지아·서윤주)는 다음 달 14일 새 앨범을 발표한다.
이날 공개된 커밍순 이미지는 가면 이미지, 꽃다발, 핸드폰 케이스, 립스틱, 스코커, 야구배트 등 키치한 분위기의 다양한 스타커가 있다. 핑크색 벽면에는 ‘라이브(LIVE)’라고 적혀 있어 어떤 의미인지 궁금증을 높인다.
미미로즈는 지난해 9월 데뷔하며 임창정이 첫 프로듀싱한 걸그룹으로 주목받았다.
미미로즈는 지난 7월을 목표로 컴백을 준비했다가, 한차례 미뤄 9월 컴백을 확정했다.

배너, ‘피크타임’ 지금부터...왔노라·보았노라·이겼노라

4월 ‘피크타임’ 우승 후 첫 음반

JTBC 보이그룹 서바이벌 ‘피크타임’ 우승팀인 ‘배너(VANNER)’가 본격적인 2막을 열었다.
21일 소속사 클렘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배너는 이날 오후 6시 첫 번째 미니음반 ‘베니 비디 비시(VENI VIDI VICI)’를 발매했다. 지난해 2월 발매한 세 번째 싱글 ‘테이크 오프(Take off)’ 이후 1년6개월 만의 컴백이다.
특히 지난 4월 중영한 ‘피크타임’에서 우승하며 ‘완성형 아이돌’로 인정받은 이후 처음 발표하는 앨범이라는 점에서 성장 서사가 담겼다.
타이틀곡 ‘퍼포머(PERFORMER)’가 그 증명이다. 펑크와 일렉트로닉이 결합된 경쾌한 팝댄스 곡이다. 어두운 시간을 지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순간을 역동적으로 담아낸 곡이다. 클렘은 “배너의 안정된 라이브 실력과 칼카 퍼포먼스가 집중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배너는 정식 데뷔 전 일본에서 200회 이상 공연하며 실력을 쌓았다. 현지에서 한류팬을 다진 그룹 ‘동방신기’도 같은 방식으로 풀뿌리 인기를 만들었다. 이후 배너는 지난 2019년 첫 정규 앨범 ‘V’로 데뷔했다. 크게 반향을 일으키

지 못했지만 ‘피크타임’으로 재발견되며 2막을 예고하고 나섰다.
팀명 배너는 승리를 뜻하는 ‘빅토리(Victory)’와 깃발을 뜻하는 ‘배너(Banner)’가 합해진 팀명이다. 정상을 향해 나아가 승리의 깃발을 꽂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라틴어인 이번 앨범 제목 ‘베니 비디 비시’ 역시 같은 맥락의 뜻을 담고 있다. 그 유명한 ‘왔노라(Veni), 보았노라(Vidi), 이겼노라(Vici)’라는 뜻이다. 로마 공화정 말기의 군인 겸 정치가인 카이사르가 반군을 제압한 뒤 내건 승전보다.
이번 앨범이 더 특기할 만한 지점은 타이틀곡 ‘퍼포머’ 외에 수록곡들 역시 퉁가볼 만하다. ‘다이아몬즈(Diamonds)’, ‘솔직히



(TBH)’, ‘원트 유 백(WANT U BACK)’, ‘세이버(Savior)’, ‘폼(FORM)(2023 Ver.)’ 등 총 6곡이 실렸다. 특히 스테레오(STEREO)14, 라이언진, 프로듀싱 팀 ‘별들의 전쟁*(GALACTIKA*)’, 몬스터엑스 형원 등이 힘을 실었다. 멤버들이 작사한 노래 ‘세이버’엔 팬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낸 친밀도를 더욱 높였다.



듀오 ‘악뮤’ 2년만 컴백 위트 있는 감성으로 귀환

남매 듀오 ‘악뮤(AKMU)’가 특유의 위트 있는 곡으로 돌아온다.
악뮤(이찬혁·이수현)는 2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에 네 번째 싱글 ‘러브 리(Love Lee)’를 발매한다.
이번 앨범은 2년여 만이다. 이들은 팬들의 기다림에 보답하기 위해 악뮤의 첫인상을 대중에게 각인했던 그 시절 감성의 곡으로 컴백한다.
타이틀곡 ‘러브 리’는 어쿠스틱한 사운드와 리드미컬한 드럼에 감각적인 보컬이 더해졌다. 유쾌한 구애가 담긴 이 노래는 과거 악뮤의 러브송들을 연상케 한다. ‘러브 리’라는 특이한 제목은 사랑스러움을 의미하는 단어 ‘리블리(Lovely)’와 두 사람의 성씨 ‘이(Lee)’를 중의적으로 활용한 것이다.